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PC(USA)는 한국전쟁 발발일과 일제강점기 해방일을 기억하며 한반도 기도와 묵상의 시기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분열의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과 빛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12시 14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잠시 멈추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교회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USA)의 한국을 위한 기도 기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s://pcusa.org/worship-with-us/yearbook/june-25-2026.

넷째 주: 성령 안에서의 새로움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19세기 후반, 장로교 선교사들과 한국인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은 한반도 전역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된 평양은 1907년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부흥은 종종 "한국의 오순절"이라 불립니다. 고백과 회개, 기도와 전도로 특징지어졌던 이 부흥은 여러 세대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형성한 신앙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과 독재를 견뎌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대형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서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부흥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지속적인 부르심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빛나며 회개와 화해, 치유와 연합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 나라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4주차 기도 제목

1. 남한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소망가운데 굳게 서도록 기도합시다.
2. 전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회개와 화해, 연합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3.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지속적인 평화와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4. 북한과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호와 힘과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합시다.
5.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소망을 신실하게 증거하도록 기도합시다.

LET'S ALL SET A PRAYER ALARM

THURSDAYS @12:14PM

WHY 12:14PM?

Let us come together in prayer, from near and far, every Thursday at 12:14 PM from June 25 to August 15. Hebrews 12:14 says, "Pursue peace with everyone, and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May Jesus Christ, our Prince of Peace, bring reconciliation, healing, and renewal to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broken world.

(818) 790-6708 La Cañada Presbyterian Church 626 Foothill Blvd, La Cañada CA